

【 예배 준비 사항 】

- ◎ 고인의 사진을 상위에 세워놓고 고인이 쓰시던 성경, 찬송이 있으면 사진 앞에 놓고 꽃으로 장식한다. 향을 피우지 않고, 지방도 쓰지 않으며, 음식상을 미리 차려놓지 않으며, 제사의식으로 하지 않는다. (오래 되어서 고인의 사진이 없을 때는 특별히 준비하지 않아도 됨)
- ◎ 고인의 육성이 녹음된 테이프나 비디오 테이프가 있으면 미리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설교 후에 잠시 듣는 시간을 가져도 좋다.
- ◎ 가족들이 그 앞에 둘러앉고 집례자는 상 옆에 앉거나 서서 인도한다.
- ◎ 본 예배 모범을 여러 장 준비하여 참석자들에게 배부한다.
- ◎ 가족 중 한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고, 다른 순서들을 나누어 담당한다.

## 설 날 조 상 추 모 예 배 순 서

2023년 설날

인도자 : 가족대표

◎ 예배의 부름 ..... 인 도 자

우리의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가족들을 한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에 가신  
부모님(혹은 선조)을 추모하여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 묵상기도..... 다 같 이

“여호와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는 그 얼굴로 내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를 기억하며  
추모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찬 송 ..... 301 장 ..... 다 같 이

1. 지 금 까 지 지 내 온 것 주 의 크 신 은 헤 라  
2. 몸 도 맘 도 연 약 하 나 새 힘 받 아 살 았 네  
3. 주 님 다 시 뵈 올 날 이 날 로 날 로 다 가 와

한 이 없 는 주 의 사 랑 어 저 이 루 말 하 라  
무 못 닷 이 부 으 시 는 주 의 은 혜 축 하 라  
거 운 집 주 께 말 겨 벗 을 날 도 멸 좇 네

자 나 깨 나 주 의 손 이 항 상 살 펴 주 시 고  
사 랑 없 는 거 리 에 나 험 한 산 길 헤 땀 때  
나 를 위 해 에 비 하 신 고 향 집 에 들 아 가

모 든 일 을 주 안 에 서 형 통 하 게 하 시 네  
아 버 지 의 손 을 굳 게 잡 고 찬 송 하 며 가 리 라  
의 품 안 에 서 영 원 하 록 살 라

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 기 도 ..... 가족 중에서

(아래의 기도문을 가족 중에서 읽으므로 기도드릴 수 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우리 가족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에 우리 가족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며 살게 하옵소서  
은총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조상)들이 남겨 주신 훌륭한 삶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에 믿음의 향기를 발하는  
성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환란과 시험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인내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모든 순간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좋은 기회가 있을 때는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실패의 순간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과 섬김을 베풀 기회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족생활의 인도자가 되시며, 은혜의 길을 여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해가 모험을 통한 승리의 한해, 행동을 통한 성취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자자손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 성경봉독 ..... 요한일서 3장 17-24절 ..... 가 족 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3장 17-24절 말씀)

◎ 설 교 .....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설 교 자

- 아래의 설교내용을 그대로 읽어주거나 인도자가 숙지하여 간단하게 들려준다.

한 번 눈을 감아봅시다.

그리고 내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우리의 기억을 끄집어내어서  
그 때의 행복을 한 번 느껴봅시다. 좀 행복한 마음이 되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수 많은 사람들이  
행복론을 펼쳐 놓았지만 그 모든 행복론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주지는 못합니다. 참된 행복은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며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자  
리가 참 행복의 자리가 행복하고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인가를  
밝히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아노라.” 요일 3장 14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일 3장 15절**

형제는 원문적으로 ‘아델포스’는 한 자궁에서 나온 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자궁을 말하기도 하지만 믿음 안에서 형제라 함은 한 자궁,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믿음의 형제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한 사도가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피를 나눈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두는 그리스도의 한 자궁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란 의미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한 형제가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한 형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형제가 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을 봅시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으로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요일 3장 17절)**

그냥 재물을 가지고 도와주라고 하면 간단할 것을 왜 마음을 닫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사랑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라나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내 자신이 사랑하며 살기로 마음먹고 내 마음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별것이 아닌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나는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에 밭에 있는 사랑의 씨에게 물을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람은 자신의 몸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자리를 사랑의 자리로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은 자신이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위한 것이기에 주어져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향한, 부모까지도 포함해서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누군가를 사랑을 대상으로 정하고 그 사람을 보거나 생각이 날 때마다 나는 그를 사랑하기로 마음으로 먹은 사람이야! 하고 고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픈 사람을 넘어서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여 사랑하기로 결심한다는 것은 그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자라고 자라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을 봅시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일 3장 22절)**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간구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 주셔서 더욱 기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 내 삶에 가진 것이 없어도 뜻을 형제를 사랑하는데 세우고 현재의 나의 삶의 능력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나아가면 더 풍성하여 사랑에 부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무엇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의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되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면 아무리 구한다 할지라도 이루어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풍요하심을 맛보는 길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는 자의 손길을 축복하셔서 더욱

베풀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서 우리 가족 모두가 사랑을 베출로 나눔으로 새 해도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기 도 ..... 설 교 자  
 ◎ 찬 송 ..... 260장 ..... 다 같 이

K. Shaw(1834-1878) 조급 빠르게 ♩ = 104 HARVEST:12.11.12.11. REF. G. A. Minor(1845-1904)

1. 새벽부터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씨를 뿌려봅 시 다  
 2. 비가오는것과 바람부는것을 겁을내지말고 뿌려봅 시 다  
 3. 씨를뿌릴때에 나지아니할까 슬퍼하며심히 애타지 라 도

열매차차익 어 곡식거둘때 에 기쁨으로단 을 거두리 로다  
 일을까쳐놓고 곡식거둘때 에 기쁨으로단 을 거두리 로다  
 나중예수께 서 칭찬하시리 니 기쁨으로단 을 거두리 로다

후렴  
 거두리 로다 거두리 로다 기쁨으로단 을 거두리 로다

거두리 로다 거두리 로다 기쁨으로단 을 거두리 로다 아 멘

Sowing in the morning 전도와 선교

◎ 주기도문(혹은 축도)..... 인도자(혹은 교역자)

\* 이상 예배를 마친 후에 인도자는 아래의 이야기를 통하여 왜 추모예배를 드리는가를 자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독교에서 명절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전통을 따르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입니다. 기독교는 효(孝)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욥신의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축복의 근거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19:3, 출20:12, 엡6:1-3). 욥신의 아버지께 효도 하지 않는 자녀는 결코 하늘의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예배 후에는

1.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주는 덕담을 하나씩 해 주면 좋습니다.
2. 먼저 부모님께 세배를 드리고 형제간에도 맞절을 합니다.
3. 온 가족 친지들이 식사를 같이 하면서 교제한다.

\* 예배인도자는 찬송, 성경을 미리 준비하시고 없는 가족을 위하여 찬송 등을 미리 복사하여 준비해 둡니다.

설날에 모처럼 함께 모인 가족들이 의미 있는 시간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